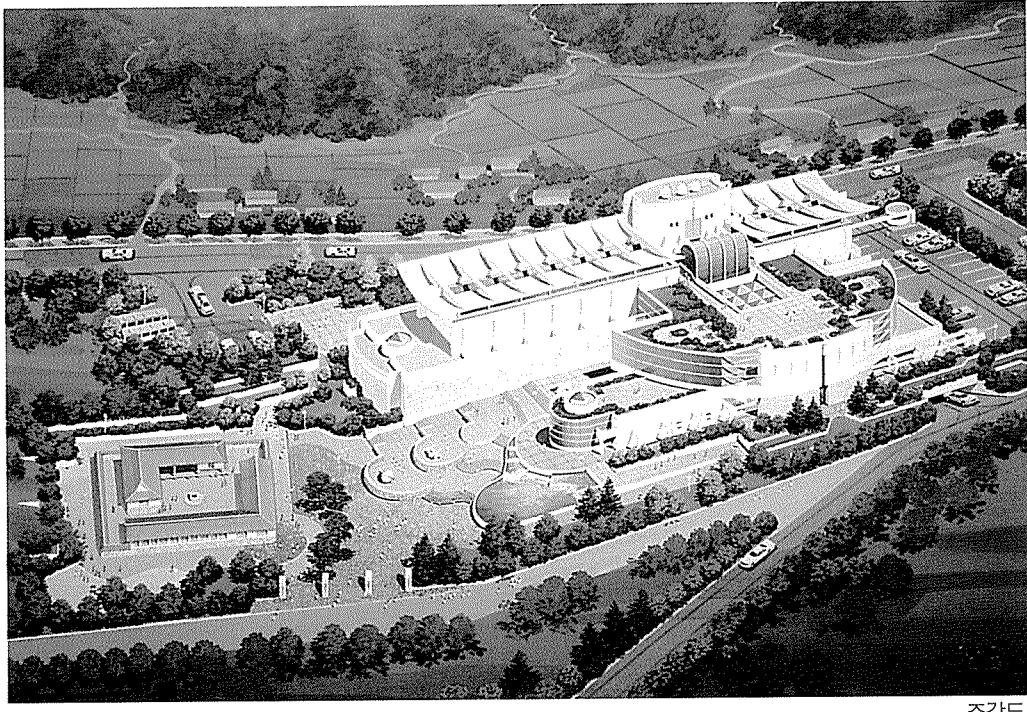


현상설계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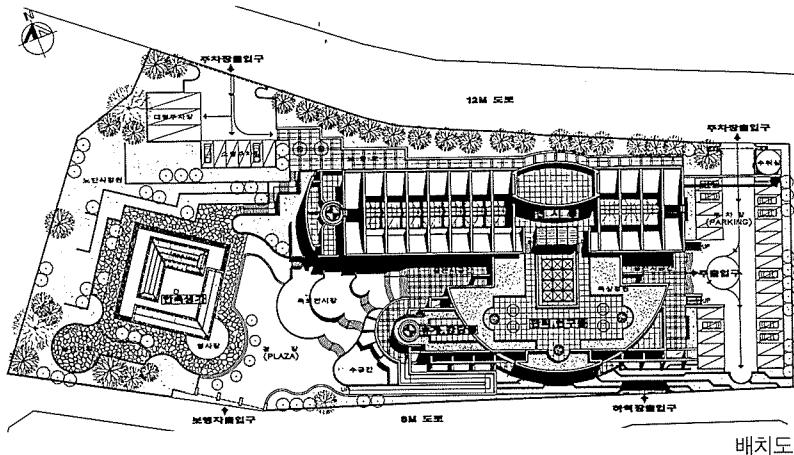


조감도

원주시립박물관

Wonju Municipal Museum

원주시에서는 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를 수집, 보존, 전시함은 물론 사회 교육기능까지 담당하게 될 원주시립박물관 건립,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해 총 7작품이 응모한 결과 산간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, 지난 6월 22일 발표했다.



배치도

당선작

종합건축 산 (한광호+하금현+유기정+김삼수)

위치 /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36-1
지역 / 일반주거지역
대지면적 / 7,477m²
연면적 / 3,834.45m²
건축면적 / 1,974.20m²
건폐율 / 26.40%
용적률 / 36.95%
규모 / 지하1층, 지상2층
구조 / 철근콘크리트 라멘조
외부마감 / 화강석 전디움,
THK 18mm 열선반사유리

계획의 주안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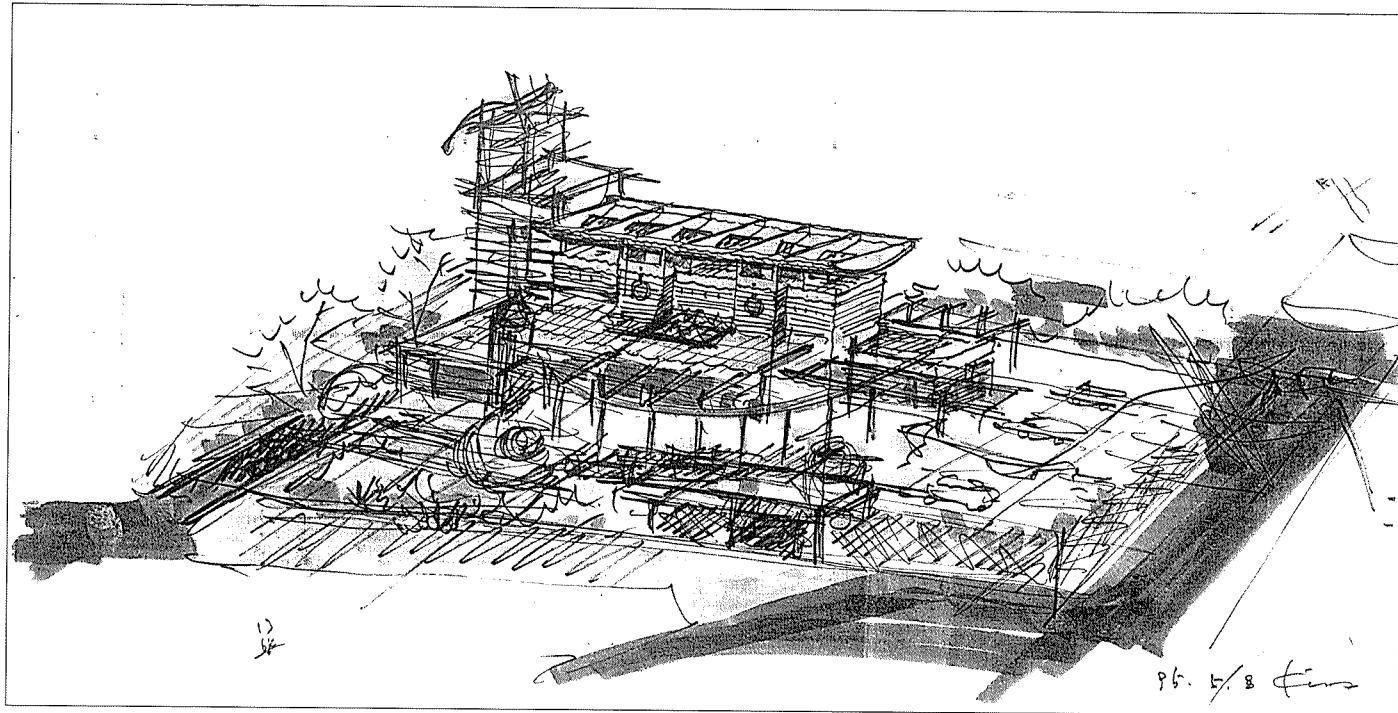
- 기본 박물관 계획 외에 전통기옥의 복원과 보존이라는 특수한 상황부여로 인해 그 주안점은 전통기옥과 박물관과의 연계 및 관람객의 용이한 접근에 둔다.
- 전통기옥은 전통의 계승, 보존이라는 차원으로 박물관은 현재로의 이어짐과 동시에 교육, 연구, 관리의 체계 아래 미래까지 바라본다는 기본질서 아래 계획한다.
- 생가(전통기옥): 정밀한 고증에 의해 한국전통기옥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며 박물관과 휴게공간 및 주위 자연과의 최대조화에 목적둔다.
- 박물관: 그 기능에 최대한 맞추되 형태는 미라지형적, 진취적인 현대적 형태로 해석하며, 전통기옥과의 단점이 아닌 절대적 상호연계성을 뛸 수 있도록 배치 및 계획.
- 휴게 및 조경: 관람객의 접근성은 휴게 및 조경이 주는 공공성과 친밀성에 그 티당성을 두었으며 함께 호흡하며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계획.
- 공간의 위계성 및 근접성에 따른 체계적 동선변화 고려
- 각 기능의 공간불할 및 유기적 연계 고려
- 도심축 형성: 도심과 치악산으로 연결된 주축의 선상위에 생가 - 광가 - 박물관 - 주차장으로 연계되는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개성적 건물의 배치유도
- 보차분리: 보행자도로와 차량진출입 도로의 엄격한 분리유도
- 기능의 유기적 작용: 생가와 박물관은 각기 유기적 기능에 의해 충실히 상호보완의 작용을 하며 그 사이의 광장 및 수공간은 원충지대로서의 역할 수행한다.

설계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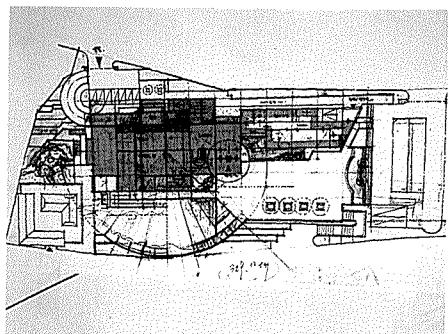
- 부지여건상의 장·단점을 충분히 해석한 후 장점과 단점의 상호보완으로 그 기능적, 형태적 수행의 역할을 최대화함.

배치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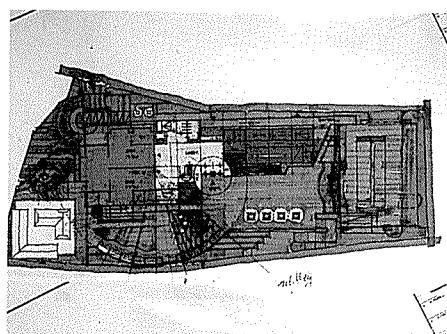
- 대지형태 및 입지조건에 부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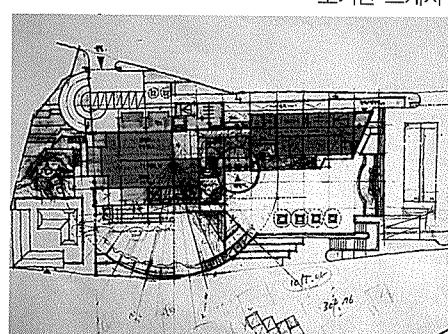
초기안 스케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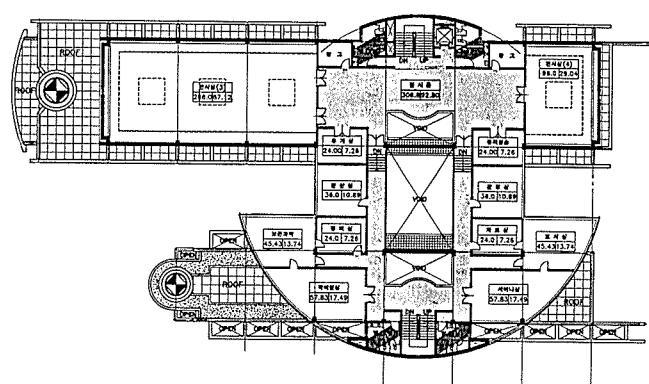
평면스케치 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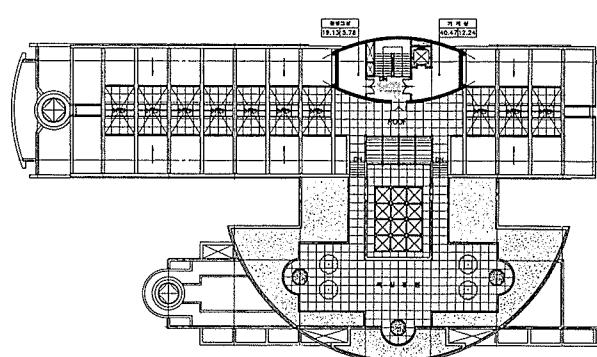
평면스케치 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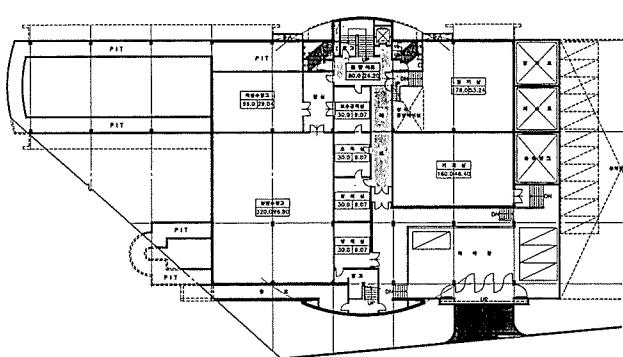
평면스케치 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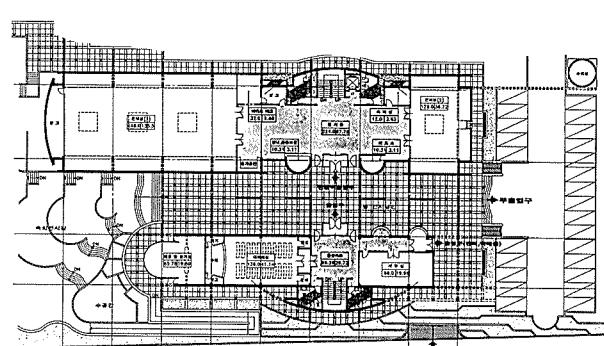
2층 평면도



옥탑 평면도



지하층 평면도



1층 평면도